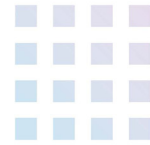


# 있는 그대로의 ‘나’와 마주하기



## 주제 개요

주제	성찰
학습 목표	인물의 행동과 생각에 공감하며 ‘체리새우: 비밀 글입니다’를 이해한다. 문학작품 감상 활동을 통하여 자신을 성찰한다. 독서와 글쓰기를 통하여 인간다운 삶을 가꾸는 태도를 지닌다.
차시별 주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읽기 전 점검하기(배경지식 활성화, 어휘 학습) + 소설의 내용 이해하기(인물의 행동과 생각에 공감하기) (1/3)</li><li>• 공감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아 성찰하기(변형시 짓기) (2/3)</li><li>• 나의 삶과 연계하기 + 찾아 읽기(★자기 주도 학습하기) (3/3)</li></ul>
제재 목록	황영미(2019), 체리새우: 비밀글입니다, 문학동네, pp.19-34, pp.164-174.
관련 교육과정 (성취기준)	[12실국05-02] 독서와 글쓰기를 통하여 자기를 성찰하고 교양을 함양한다. [10국05-05]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지도 시 유의점 (수업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읽기 전 점검하기 활동은 ‘성찰’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인식시키고, 자아를 성찰하는 활동이 자기를 이해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하는 데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시키는 단계이다. 이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자아 성찰이 성장의 전제 조건임을 이해시킨다.</li><li>• 수업에서 다루는 문학작품들을 읽고 인물의 행동과 생각에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친구 관계 때문에 갈등하며 자아상을 정립해가는 주인공의 모습에서 학생들이 자신과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교사가 적절한 발문을 한다. 또한, 인물의 감정에 공감하여 자신도 작품 속 상황과 유사한 경험이 있는지를 찾도록 이끌어 준다.</li><li>• 학생들이 자아 성찰을 할 때 자신의 부정적인 상황까지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함을 인식시킨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이 자기 이해의 필수적인 과정임을 이해시킨다.</li><li>• 자아 성찰은 개인적인 에피소드들을 교사에게 드러낼 수밖에 없는 활동이므로 모둠 활동보다는 개별 활동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학생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수업을 통하여 드러낸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들이 학생이 원한다면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감을 줄 필요가 있다.</li></ul>

## ● 단원 개관

- 이 단원은 학생들이 문학작품을 통하여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하여 설정했다. 학생들은 청소년을 주인공으로 한 문학작품 감상 활동을 하면서 타인과의 비교, 경쟁 속에서 살아왔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갖게 될 것이다. 문학 감상 활동은 그 자체로 성찰의 과정을 수반한다. 삶을 반영하고 있는 텍스트에 대한 독자의 사유가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로 확장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문학 감상 활동을 통하여 ‘나’에 대해 탐구하고, ‘나’를 둘러싼 관계 속에서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다.
- 이 단원의 제재인 ‘체리새우: 비밀글입니다’<sup>1)</sup>는 제9회 문학동네청소년문학상 대상 수상작으로 주인공이 겪게 되는 복잡한 갈등 속에서 ‘나’를 파악하고 인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다루고 있다. 학생들은 소설 속 등장인물이 겪는 일상적인 사건에 자신의 상황을 대입해 보고 그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엮어 읽기 제재로 이정록의 ‘까짓것’<sup>2)</sup>, 메리 파이프의 ‘나의 글로 세상을 1밀리미터라도 바꿀 수 있다면’<sup>3)</sup>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깊이 있게 자신을 성찰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 이 단원을 통해 학생들은 ‘[10국05-05]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와 ‘[12실국05-02] 독서와 글쓰기를 통하여 자기를 성찰하고 교양을 함양한다.’라는 성취기준을 달성할 수 있다.

1) 황영미(2019), 체리새우: 비밀글입니다, 문학동네, pp.19-34. pp.164-174.

2) 이정록(2017), 까짓것, 창비교육, pp.110-111.

3) 메리 파이프(2020), 나의 글로 세상을 1밀리미터라도 바꿀 수 있다면, 티라미수, pp.36-38.

## 읽기 전 점검하기

### 배경지식 활성화

#### • 자아 성찰

‘자아 성찰’은 일상적으로 널리 쓰는 말이지만, 학생들이 자아를 성찰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생각해 본 경험은 적을 것이다. 자신을 되돌아보거나 반성하는 것 정도로 생각해 보았을 것인데, 그러한 표면적인 의미로만 자아 성찰을 이해하고 있다면 자신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사유하는 이 단원의 활동들이 피상적으로 여겨질 수 있다.


‘자아 성찰’은 자신의 내면을 깊이 살펴봄으로써 자기의 생각, 감정, 욕구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갖게 된 경험, 감정, 생각 등을 돌아보고 통합해 가며 자신의 인격을 성숙시켜 가는 과정이다. ‘자아 성찰’은 자신의 긍정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오래된 상처나 부정적인 기억들 등 부정적인 면까지도 포함하여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스스로 돌이켜 봄으로써 심리적 갈등이나 문제 상황을 해소하는 동력이 된다.

#### • 청소년 문학

이 단원은 학생들이 깊이 있는 자아 성찰을 경험하도록 청소년 문학을 활용하였다. 청소년 문학은 청소년의 삶을 주제로,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정체성의 갈등, 희망 등을 다룬다. 그래서 청소년 문학에는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거나 경험할 일들이 다른 장르에 비하여 직접적으로 담겨 있다. 청소년들은 등장인물에 감정을 이입하고 상상력을 발휘하는 과정 속에서 자아 성찰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다룬 문학작품을 통하여 자신이 경험하였거나 앞으로 경험할 세계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다.

### 활동 시 유의점

- ‘성찰’을 주제로 하는 이 단원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경험을 투영할 때 자신의 삶을 성찰해본다는 수업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 학생들이 문학작품 감상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평소 자신에 대해서 진지하게 돌아본 경험이 많지 않을 청소년들에게, 이 수업의 초점이 자기를 탐색하고 성찰함으로써 자기 이해에 도달하는 데 있음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수업의 도입부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필명 짓기라는 가벼운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특징을 떠올려 보며 자기를 이해하는 ‘성찰’이라는 수업 주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영상에서는 이름 짓기가 내 안의 또 다른 나를 발견하고 생명을 불어넣는 행위라고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자신의 특성을 드러내는 필명을 짓고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보자.

영상을 보고 자신의 특성이 드러나는 필명을 지어 보자.



지식채널e 당신의 이름은 몇 개 입니까?

나를 '나'이게 만드는 것. '이름'. 그리고 꽃처럼 피어나는 또 다른 이름.

[https://jsike.ebs.co.kr/jsike/vodReplayView?siteCd=JE&prodId=352&courseId=BP0PAPB000000000009&stepId=01BP0PAPB000000000009&lectId=3024834#none](https://jsike.ebs.co.kr/jsike/vodReplayView?siteCd=JE&prodId=352&courseId=BP0PAPB0000000009&stepId=01BP0PAPB000000000009&lectId=3024834#none)

나의 필명은?

이유는?

## 예시 답안

나의 필명은? 제비꽃


이유는? 내가 꽃을 좋아하기도 하고, 담벼락 아래에서 보랏빛으로 도도하게 피어 있는 모습을 보고 내성적이라서 자신을 잘 드러내지는 않지만 자존심이 센 나와 비슷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 교사 설명의 예

필명은 자신의 개성을 반영해서 스스로 짓는 이름이다. 자유롭게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름을 짓게 하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비속어나 은어 등을 사용하여 이름을 지을 수는 없다는 규칙을 정하여 되도록 긍정적인 언어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학생이 발표를 한 경우에는 학생의 필명에서 연상되는 장점과 학생을 연관시켜 조언을 해 줌으로써 학생이 스스로를 드러낸 점을 격려해 준다. 더불어 이처럼 자신을 돌아보는 행위가 곧 '성찰'임을 이해시킨다.

## 어휘 학습

- 이 단원은 ‘체리새우: 비밀글입니다’<sup>4)</sup>를 중심으로 이정록의 ‘까짓것’<sup>5)</sup>에 수록된 시 ‘나를 이루는 것들’과 메리파이퍼의 ‘나의 글로 세상을 1밀리미터라도 바꿀 수 있다면’<sup>6)</sup>을 감상하며 자기를 ‘성찰’하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중심 제재인 ‘체리새우: 비밀글입니다’는 청소년 문학으로 청소년의 일상을 다루고 있어서, 청소년에게 생소한 내용은 없다. 시와 산문에서도 고등학생 학습자가 이해하지 못할 수준의 어휘는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이 단원의 주제인 ‘성찰’과 관련된 어휘를 학습함으로써, 문학 감상 활동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이 단원의 목표가 자기 성찰임을 주지시켜 준다.

 학생 활동지 [활동 1]에서 이 단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어휘를 미리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활동 1** 이 단원의 제재를 잘 이해하기 위해 주요 단어의 의미를 파악해 보자.

어휘	내가 생각하는 의미	사전적 의미
성찰		
정체성		
반성		
성장		

## 예시 답안

**활동 1** 이 단원의 제재를 잘 이해하기 위해 주요 단어의 의미를 파악해 보자.

어휘	내가 생각하는 의미	사전적 의미
성찰	반성하는 것	교사 설명 참조
정체성	나다운 것	
반성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것	
성장	전보다 커가는 것	

4) 황영미(2019), 체리새우: 비밀글입니다, 문학동네, pp.19-34, pp.164-174.

5) 이정록(2017), 까짓것, 창비교육, pp.110-111.

6) 메리 파이퍼(2020), 나의 글로 세상을 1밀리미터라도 바꿀 수 있다면, 티라미수, pp.36-38.

## 교사 설명의 예

어휘	내가 생각하는 의미	사전적 의미(표준국어대사전)
성찰	학생들이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 준다.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핌
정체성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
반성		자신의 언행에 대하여 잘못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돌이켜 봄.
성장		사람이나 동식물 따위가 자라서 점점 커짐

성찰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평소에 자신이 생각하는 단어의 뜻을 무엇으로 알고 있는지 먼저 써 보게 한다. 그 뜻과 사전적 의미가 어떤 거리가 있는지, 있다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야기해 볼 수 있다. 때로는 학생들이 말하는 의미가 사전적 의미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런 경우 학생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발표하게 하여 함께 성찰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도록 한다.

자기를 성찰하기 위해서는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행위가 수반되어야 한다. 자아 성찰은 자신의 내면을 깊이 살펴봄으로써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갖게 된 경험, 감정, 생각 등을 돌아보고 통합해가는 과정이다. 그러하기에 학생들에게 문학작품을 감상하며 자신의 내면을 조용히 응시하며 과거와 현재의 경험을 떠올려 보고, 자신을 둘러싼 관계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것임을 인식시킨다.

## 글 읽기

### ☞ 내용을 파악하며 읽기

#### • 질문하며 읽기

‘체리새우 : 비밀글입니다’<sup>7)</sup>는 청소년 문학으로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전혀 없다. 그러하기에 표면적으로만 소설을 읽을 경우 ‘친구들 사이에서 싸우다가 다른 친구와 친해지는 이야기’ 정도로 피상적으로 이해하기 쉽다. 이 소설이 청소년기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갈등을 담고 있으며, 자기를 성찰함으로써 그 어려움을 극복해 가고 있음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용까지 적극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질문을 생성하며 읽어 가도록 한다.

#### • 기억에 남는 장면 중심으로 이해하기

이 단원에서 문학작품은 자기 성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다. 그래서 작품 전체를 깊이 있게 분석하며 이해하는 것보다 학생들이 부분적으로라도 특정 부분에 공감하며 자신의 경험을 투영시켜 보고, 그로 인해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기억에 남는 장면 하나를 선정하게 하고, 그 장면이 나에게 왜 의미 있었는지 이야기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자신이 그 부분에 공감대가 생긴 이유를 탐색해 보게 한다. 이는 문학을 통해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기도 하다.

➡ ‘체리새우:비밀글입니다’를 빈칸을 채워 가며 읽게 한다. 읽어 가면서 작품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질문을 만들고 나름의 답을 달아 보며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투영하도록 한다. 질문을 달며 소설을 읽은 후에는 기억에 남는 장면을 하나만 골라 그 내용을 정리해 본다.

### 활동 2 ‘체리새우: 비밀글입니다’ 읽기

1. ‘체리새우: 비밀글입니다’를 읽으며 빈칸을 채워 보자.

5분 대기조

- 다현이가 운영하는 ( )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다 말하는 공간이다.
- 다현이는 가곡을 들으면 마음이 편해지지만 이런 노래를 좋아하면 아이들이 ( )이라고 놀릴까 봐 숨기려 한다.
- 다현이는 체리새우와 자신이 작고 연약한 듯 보이지만 ( )인 점에서 닮았다고 생각한다.
- 다현이는 예전에 친구들에게 ( )를 당한 경험이 있다.
- 다현이는 중학교에 들어와 ( )를 만나 새로운 친구 무리를 사귀게 되었다.

7) 황영미(2019), 체리새우: 비밀글입니다, 문학동네, pp.19-34, pp.164-174.

체리새우 껍질을 벗다

- 다섯손가락 친구들과 거리가 생긴 다현이는 아침이 되면 아팠고, 교실에 앉아 있으면 가슴이 (            ).
- 해강이가 되고 싶은 꿈은 (            ),(            )이다.
- 다현이는 다섯손가락 친구들과 멀어진 후, 글을 쓰면서 조금씩 (            )을 얻었다.
- 다현이는 더 이상 웅크리며 살지 않기로 결심하며 블로그를 (            )로 전환한다.
- 다현이는 이제 (            )처럼 우뚝 서서 더 단단해지겠다고 다짐하였다.

2. 소설을 읽고 이 작품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질문을 만들고, 나름의 답을 달아 보자.

- 등장인물의 심리와 관련된 질문:
- 작품 속 사건과 관련된 질문:
- 작품과 유사한 현실과 관련된 질문:
- 작가의 의도와 관련된 질문:

3. 소설을 읽고 기억에 남는 장면 하나를 선택하여 다음의 표를 채워 보자.

기억에 남는 부분	이유	기억하고 싶은 구절

## 예시 답안

### 활동 2 '체리새우: 비밀글입니다'<sup>8)</sup> 읽기

1. '체리새우: 비밀글입니다'를 읽으며 빈칸을 채워 보자.

5분 대기조

- 다현이가 운영하는 ( 체리새우 블로그 )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다 말하는 공간이다.
- 다현이는 가곡을 들으면 마음이 편해지지만 이런 노래를 좋아하면 아이들이 ( 진지충 )이라고 놀릴까 봐 숨기려 한다.
- 다현이는 체리새우와 자신이 작고 연약한 듯 보이지만 ( 굳건한 생명체 )인 점에서 닮았다고 생각한다.
- 다현이는 예전에 친구들에게 ( 은따 )를 당한 경험이 있다.
- 다현이는 중학교에 들어와 ( 권설아 )를 만나 새로운 친구 무리를 사귀게 되었다.

체리새우 껍질을 벗다

- 다섯손가락 친구들과 거리가 생긴 다현이는 아침이 되면 아팠고, 교실에 앉아 있으면 가슴이 ( 답답했다 ).
- 해강이가 되고 싶은 꿈은 ( 주슨트 ), ( 반려견 유치원 선생님 )이다.
- 다현이는 다섯손가락 친구들과 멀어진 후, 글을 쓰면서 조금씩 ( 자신감 )을 얻었다.
- 다현이는 더 이상 웅크리며 살지 않기로 결심하며 블로그를 ( 공개 )로 전환한다.
- 다현이는 이제 ( 나무 )처럼 우뚝 서서 더 단단해지겠다고 다짐하였다.

2. 소설을 읽고 이 작품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질문을 만들고, 나름의 답을 달아 보자.

- 등장인물의 심리와 관련된 질문:

다현이가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 작품 속 사건과 관련된 질문:

다현이가 다섯손가락 친구들에게 블로그를 공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 작품과 유사한 현실과 관련된 질문: 왜 따돌림이라는 것이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 작가의 의도와 관련된 질문: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을까?

3. 소설을 읽고 기억에 남는 장면 하나를 선택하여 다음의 표를 채워 보자.

기억에 남는 부분	이유	기억하고 싶은 구절
다현이가 블로그를 공개로 전환한 부분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내기로 한 것이 마음에 들어서	'친구들이 떠난 허전한 자리에 어느덧 나를 위한 문장들이 차곡차곡 쌓였다.'

8) 황영미(2019), 체리새우: 비밀글입니다, 문학동네, pp.19-34, pp.164-174.


**교사용 TIP**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깊이 있는 감상을 좌우하는 만큼 교사는 인물의 갈등 상황과 감정 변화에 대하여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질문의 예를 다양하게 들어줄 수 있다. 교사가 학생들이 만든 질문을 모두 모아 그에 답하면서 함께 소설을 감상할 수도 있다. 기억에 남는 장면에 대해 정리하는 3번 문항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정리하게 하고 공유한다. 감상을 나누면서 소설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을 학생들이 경험하게 한다.

## ● 유의점

- 학생들에게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활동이 곧 자아 성찰의 과정임을 주지시킨다. 이 작품의 특정한 부분이 마음에 걸리거나 기억에 남는 이유는 자신의 경험과 생각이 투영되기 때문임을 인식하게 한다.

이 단원에서 다루는 문학작품들은 학생들이 자아 성찰을 깊이 있게 하도록 이끌어 주는 도구이다. 그러하기에 작품 전체를 분석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작품의 일부분에라도 공감하고, 자신의 경험과 연결시켜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것이 더 중요하다.

### 1. 작품의 상황을 타인의 경험으로 한정하여 이해하는 경우

인물의 상황에 공감하지 않으면 문학작품을 통한 성찰이라는 수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 작품의 상황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타인이 처한 상황이 아니라, 나도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고, 또 경험하고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 2. 작품의 상황에 감정적으로만 반응하는 경우

문학에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다. 그렇다고 거리 두기를 전혀 하지 않으면 작품에 몰입되어 감정적으로만 반응하고 그치게 된다. 적절한 감정적 반응과 거리두기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 정서적 반응에 이성적 생각을 더할 수 있도록 교사가 적절한 발문을 제공할 수 있다. 등장인물의 어떤 점에 공감하였는가? 나와 어떤 점에서 같고 다른가? 각각의 등장인물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가? 등의 발문은 감정적 반응에 대해 사유하고 거리를 둘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 글 내용 확인하기

### ☞ 인물의 행동과 생각 파악하기

- 글을 읽으며 다양한 질문을 생성하며 소설의 내용을 이해했다면 이번에는 주요 내용을 깊이 있게 파악해 보도록 한다. 인물의 행동과 생각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인물의 감정 변화의 원인을 인식할 수 있고, 인물에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학생 활동지 [활동 3]의 문제를 풀며 소설의 주요 내용을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활동 3 '체리새우: 비밀글입니다'<sup>9)</sup>의 주요 내용 파악하기

1. 소설을 읽고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의 문제를 풀어 보자.
  - 다현이는 친구들과 사귄 때 자신보다 친구들을 배려하는 편이다. ( O , X )
  - 다섯손가락 친구들은 다현이를 존중하며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었다. ( O , X )
  - 다현이는 끝까지 진지충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자신을 숨겼다. ( O , X )
  - 다현이는 블로그에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글을 썼다. ( O , X )
  - 다현이는 다섯손가락 친구들과 멀어진 후 외톨이가 되었다. ( O , X )

2. 이 소설의 감상평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여 수업 게시판에 올려 보자.

감상평	평점
	☆☆☆☆☆

### 교사 설명의 예

1. 소설을 읽고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의 문제를 풀어 보자.

- 다현이는 친구들과 사귄 때 자신보다 친구들을 배려하는 편이다. ( O , X )
- 다섯손가락 친구들은 다현이를 존중하며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었다. ( O , X )
- 다현이는 끝까지 진지충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자신을 숨겼다. ( O , X )
- 다현이는 블로그에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글을 썼다. ( O , X )
- 다현이는 다섯손가락 친구들과 멀어진 후 외톨이가 되었다. ( O , X )

9) 황영미(2019), 체리새우: 비밀글입니다, 문학동네, pp.19-34, pp.164-174.

## 예시 답안

**활동 3** 이 소설의 감상평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여 수업 게시판에 올려 보자.

감상평	평점
내가 겪는 어려움이 나만의 것이 아님을 알게 하는 따뜻한 이야기이다.	★★★★☆


**교사용 TIP**

단순히 문제의 정답을 맞추는 활동이 되지 않도록 문제의 답을 맞춰 가며 인물이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등 '왜'라는 질문을 자꾸 던져 준다. 그 가운데 학생들이 소설의 행간에 숨어 있는 의미를 풍부하게 발견해 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자세히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 것은 학생들이 자신만의 감상을 잘 하기 위한 기초 단계이다. 따라서 내용을 다 파악한 후에는 학생들에게 짧은 문장으로 감상평을 정리하게 하여 주체적인 독자가 되도록 이끌어 준다. 학생들의 글은 수업 게시판에 모아서 문학작품 리뷰, 책 소개 활동 등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 나의 삶과 연계하기

### ☞ 인물의 생각과 행동에 공감하기

➡ 학생 활동지 [활동 4]는 작품 속 인물의 성찰을 중심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 활동 시 유의점

- 다현이의 성찰이지만, 단순히 타인의 경험으로만 여기지 않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며 자신의 경험과도 밀접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자신의 경험을 투영하게끔 이끌어 준다.

#### 활동 4 인물의 생각과 행동에 공감하기

1. 다현이가 자신을 성찰하는 부분을 읽고 다음의 표를 채워 보자.

성찰하는 부분	인물의 생각	나였다면?

2. 다현이의 블로그에서 최고의 글을 선정하고 그 이유를 써 보자.

최고의 글	이유

## 예시답안

**활동 4** 인물의 생각과 행동에 공감하기

1. 다현이가 자신을 성찰하는 부분을 읽고 다음의 표를 채워 보자.

성찰하는 부분	인물의 생각	나였다면?
그래 나 진지충이다 어쩌라고.	자신이 진지충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내가 가곡을 좋아했다면 그건 진지충이 아니라 좋은 취미를 갖고 있다고 자랑스러워 했을 것이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가곡에 대해 알려줬을 것이다.

2. 다현이의 블로그에서 최고의 글을 선정하고 그 이유를 써 보자.

최고의 글	이유
어떤 친구가 말했다. 우리 모두는 나무들처럼 혼자라고. 좋은 친구는 서로에게 햇살이 되어 주고 바람이 되어 주면 된다고. 독립된 나무로 잘 자라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 그게 친구라고.	다현이가 다섯손가락 친구들에게 매어서 자신을 숨기고, 참기만 하는 것이 안타까웠는데, 이제야 친구 관계가 어떡해야 하는지 이해한 것 같아서이다. 이후부터는 다현이가 용기 있게 행동할 것 같다.

## 교사 설명의 예

이 소설에는 다현이의 심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다현이의 심리를 통해 우리는 친구 관계에서 갈등할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다현이의 자아 성찰을 대신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을 돌아보고 친구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게 이끌어 준다.

## 교사용 TIP

학생들이 표를 채워 가며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면 더욱 풍부한 자아 성찰이 가능하다. 이유를 쓸 때 되도록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며 그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현이의 생각에 공감했다든지, 다현이의 글 중 이런 글이 가장 와닿았다든지 등의 이유를 쓰게 하면 자연스럽게 감상 활동의 초점이 자아 성찰에 맞추어 질 것이다.

## ●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 학생 활동지 [활동 5]에서는 다양한 인물의 입장이 되어보면서 인물의 행동을 평가하고, 자신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생각해 보게 하였다. 인물에 깊이 공감하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투영하며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될 것이다.

**활동 5** 자신이 다음의 등장인물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는지 각각 써 보자.

내가 해강이었다면?	

### 예시답안

**활동 5** 자신이 다음의 등장인물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는지 각각 써 보자.

내가 해강이었다면?	다현이에게 다가가기 어려웠을 것이다.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아이들과 갑자기 서먹해진 다현이의 상황을 보면서 무언가 가까이 하기는 어려운 아이라고 편견을 가졌을 것이다.
내가 다현이었다면?	처음부터 솔직하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고 다섯손가락 친구들과 친해졌을 것 같다. 솔직한 내 모습을 싫어하는 친구들이라면 멀리했을 것이다.
내가 아람이었다면?	친구를 무시하거나, 친구가 없는 곳에서 나쁜 말을 하거나, 친구를 종처럼 부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서로 존중하면서 친구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 교사 설명의 예

다양한 인물의 입장을 헤아려 보면서 인물의 행동이 어떤 점에서 옳고 그른지 판단해 볼 수 있다. 또한 각각의 인물이 되어 보는 과정 속에 자신의 경험을 투영시키고, 등장인물처럼 행동하는 자신을 성찰해 보면서 내가 친구 관계에서 어떤 특징을 지닌 사람임을 이해하게 된다. 동시에 관계 맺기에서 일어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될 것이다.

## 찾아 읽기

### ◉ 다른 작품 엮어 읽기

이 활동은 다른 작품과 엮어 읽으면서 작가가 작품을 통해 삶을 성찰한 내용에 공감하며 자신을 성찰해 보는 것이다. '체리새우: 비밀글입니다'<sup>10)</sup>와 이정록의 시 '나를 이루는 것들'<sup>11)</sup>을 엮어 읽으며 자아 성찰의 폭을 넓히도록 한다.

**찾아읽기 1** 이정록의 시 '나를 이루는 것들'을 읽고 다음의 활동을 해 보자.

1. 이 시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을 찾고, 해당 부분에 드러난 화자의 성찰을 중심으로 다음의 표를 채워 보자.

마음에 드는 부분	화자가 성찰한 내용	화자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일까?
연		
연		

2. 이 시에서 '나를 이루는 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정리해 보자.

### 예시답안

**찾아읽기 1** 이정록의 시 '나를 이루는 것들'<sup>12)</sup>을 읽고 다음의 활동을 해 보자.

1. 이 시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을 찾고, 해당 부분에 드러난 화자의 성찰을 중심으로 다음의 표를 채워 보자.

마음에 드는 부분	화자가 성찰한 내용	화자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일까?
2연	우리들의 부끄러운 추억, 귀찮고 떼어내고 싶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멋을 더해 준다고 성찰함.	부끄러운 경험이 나를 반성하게 하여 나를 성장하게 했고,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은 지금은 싫지만, 사실은 내가 바르게 행동하도록 계속 귀찮게 나를 일깨워 주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2. 이 시에서 '나를 이루는 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정리해 보자.

나를 둘러싼 것들이 나를 나답게 했고, 내가 버리고 지우고 떨쳐 내고 싶은 것들이 사실은 나를 이루는 것들이라고 말하는 것 같다.

10) 황영미(2019), 체리새우: 비밀글입니다, 문학동네, pp.19-34, pp.164-174.

11) 이정록(2017), 까짓것, 창비교육, pp.110-111.

12) 이정록(2017), 까짓것, 창비교육, pp.110-111.

## 교사 설명의 예

이정록의 시는 나의 부끄러운 경험, 부족한 부분들까지도 나를 이루는 것들임을 인식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나를 나답게 한 것이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 덕분이라는 이해에 도달하게 도와준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 ‘때문’이 아닌 ‘덕분’으로 인식하는 화자의 긍정적인 삶의 태도 속에서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자기 성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 ‘체리새우: 비밀글입니다’<sup>13)</sup>와 ‘나를 이루는 것들’<sup>14)</sup>의 작가의 말을 통해 작품 속에 드러나 있는 삶에 대한 인식을 보다 넓히도록 한다.

**찾아읽기 2** 1. 작가의 말을 참고하여 ‘체리새우: 비밀글입니다’와 ‘나를 이루는 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말해 보자.

저도 그랬고, 많은 아이들이 자기를 감추며 살아요. 나를 드러내면 무시당할까 봐, 혹은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를 떠날까 봐 두려운 거겠지요. 다행히 요즘은 온라인에서 속마음을 많이 털어 놓더군요. 한번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급식 같이 먹을 친구가 없어서 점심을 굶는다는 글을 보게 되었어요. 왜 밥 안 먹었냐고 누가 물으면 다이어트한다고 돌려댄대요.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서 긴 댓글을 달았어요. 이런 것 말고도 관계에 대한 고민 글은 끝도 없이 커뮤니티에 올라와요. 각자 사정이 절박해서 정답도 없어요. 전학이나 자퇴를 고민할 정도로 심각한 글도 꽤 있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게시글에 댓글을 다는 심정으로 소설을 쓰게 되었어요. (작가 인터뷰: <http://ch.yes24.com/Article/View/38121>)

굿바이라는 말의 어원은 ‘God be with you’라고 한다.

이제 체리 새우에 나오는 아이들이 내 곁을 떠난다. 꽃길만 걸을 수는 없겠지만, 미움받더라도 당당하게 잘 살아 내기를. 김다현, 굿바이! (작가의 말: 황영미(2019), 체리새우: 비밀글입니다, 문학동네, p.199)

- 황영미

이 시집은 그 세월을 나와 함께한 토막 분필과 몽당연필에 대한 반성문이다. 내 절망과 아이들의 초록빛 목소리를 담고 싶었다.

미안하고 고맙다.

강을 굽어본다. 강 건너 포플러나무 이파리가 반짝거린다. 저 강의 너비와 깊이를 만든 건 무자비한 홍수였을 것이다. 흙탕물이 덮였던 강바닥으로 흰 새가 난다. 강바닥이 깊을수록 커다란 홍수를 이겨 낸 증거다. 삶의 가장 낮은 꼭짓점에 청춘이 있다. 툭 차고 올라 새의 날갯짓이 되자. 포플러나무의 푸른 춤이 되자.

-이정록

(작가의 말: 이정록(2017), 까짓것, 창비교육, pp.122-123)

13) 황영미(2019), 체리새우: 비밀글입니다, 문학동네, pp.19-34, pp.164-174.

14) 이정록(2017), 까짓것, 창비교육, pp.110-111.

## 교사 설명의 예

### 찾아읽기 2

1. 작가의 말을 참고하여 ‘체리새우: 비밀글입니다’<sup>15)</sup>와 ‘나를 이루는 것들’<sup>16)</sup>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말해 보자.

두 작가는 공통적으로 청소년기에 처한 아이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김다현, 굿바이’를 말하며 격려하는 황영미 작가나, ‘포플러나무의 푸른 춤’이 되라고 말하는 이정록 작가 모두 청소년기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그 어려움과 마주하고, 차고 올라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있다. 이들의 말은 수업을 통하여 문학작품에 공감하고 감정을 이입하며 읽은 학생들을 향한 말이기도 하다. 자신의 경험을 투영하며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자신이 곧 다현이고, 나를 이루는 것들 중에 부끄러운 일도 있음을 인식한 학생들에게 작가의 말은 그들을 향한 격려의 말이기도 하다.

### 교사용



### TIP

문학작품을 다 읽고 나서 작가의 말을 읽는 것은 작품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평소에도 학생들이 작가의 말을 찾아 읽음으로써 작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또한 작가의 말이 지금의 학생들, 청소년들을 향한 것이기도 하기에 그 말 속에서 학생들이 격려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도록 수업 분위기를 이끌어 준다.

15) 황영미(2019), 체리새우: 비밀글입니다, 문학동네, pp.19-34, pp.164-174.

16) 이정록(2017), 까짓것, 창비교육, pp.110-111.

**찾아읽기 3** 화자와 비슷한 경험을 떠올려 보고 시의 형식을 참고하여 나의 생각이 들어간 ‘나를 이루는 것들’의 변형시를 써 보자.

1. 화자와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보자.
  - 내가 사랑하는 것은?
  -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영향을 미친 사람은?
  -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떠한가?
  - 나를 힘들거나 슬프게 하는 것은?
  -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은?
2. 자신의 경험을 반영하여 ‘나를 이루는 것들’의 변형시를 써 보자.

### 예시답안

1. 화자와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보자.
  - 내가 사랑하는 것은? **엄마**
  -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영향을 미친 사람은? **가족들**
  -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떠한가?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잘 해나갈 수 있을지 불안하다.**
  - 나를 힘들거나 슬프게 하는 것은? **공부를 잘 못하는 것**
  -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을 정식으로 배우게 된 것.**
2. 자신의 경험을 반영하여 ‘나를 이루는 것들’의 변형시를 써 보자.

(...)

**나를 나답게 한 건**  
**중요한 순간에 하고 싶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불안하고 걱정도 앞섰지만**  
**그런 선택을 한 것이 바로 나라고, 그래서 책임도 온전히 나에게 있다고**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며**

## 교사 설명의 예

‘나’를 돌아보며 시를 쓰는 경험은 그 자체로 깊은 성찰의 경험을 하게 한다. 시를 창작하면서 자신의 내밀한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속에 쌓여 있던 감정들을 드러낼 수 있다. 또한 시에 사용하는 단어는 하나하나 시인의 생각과 경험을 반영한다. 시에 드러난 다양한 심상들은 시인의 경험을 감각과 관련한 언어로 표현한 것이다. 백석의 ‘국수’에 등장하는 국수를 떠올려 보자. ‘국수’는 시인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체험된 음식이다. 그래서 시를 통해 화자는 말한다. 부드럽고 수수하고 습습한 국수가 반갑다고. 이처럼 시에 쓰이는 언어는 체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에 그 자체로 성찰적이다. 시를 쓰면서 자신의 체험을 떠올리고 의미를 부여하게 되기 때문이다. ‘나를 이루는 것들’을 주제로 변형시를 쓰는 활동은 지금까지 ‘나’라는 존재를 이뤄온 다양한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교사용 TIP

시를 쓰는 경험은 자신을 성찰하는 하나의 방법을 경험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문학작품을 감상하고 창작하는 활동은 그 자체로 성찰적이다. 그러하기에 시 쓰기는 곧 자신을 성찰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이 활동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자신을 표현하는 데 주저하지 않도록 동기부여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변형시 쓰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변형시 쓰기는 단순히 시어를 바꿔 넣는 것에서부터 시의 발상만 차용하고 완전히 새롭게 쓰는 것까지 다양할 수 있다. 시어, 문장 수준에서 자신의 경험을 투영하여 변형하도록 안내하고, 적극적인 학생의 경우 시의 발상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를 쓰도록 안내한다. 또한 마지막 연만 바꿔 쓰거나, 두 연만 쓰게 하는 등 분량을 조절하여 활동의 난도를 조절할 수 있다.

## 자기 주도 학습하기

### ☞ 나를 일깨워 준 문장들

➡ 문학작품 감상 활동은 ‘성찰’의 과정을 수반한다. 작가가 직접적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있는 글은 보다 쉽게 학생들이 글을 통해 성찰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인식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이끌어 준다.

**자기주도 학습하기 2** 이 글의 글쓴이는 안네의 일기를 읽고 자신의 세계관이 바뀌는 경험을 한다. 글쓴이의 성찰 과정을 살펴보고 이처럼 자신을 일깨워 준 문장을 노래 가사나 영화 대사 중에서 떠올려 보고 수업 게시판에 올려 친구들에게 소개해 보자.

처음으로 나의 세계관을 바꿔준 책은 <안네의 일기>였다. 네브래스카주 비버시티에 살던 시절, 열두 살 때 일이다. <안네의 일기>를 읽기 전까지는 그럭저럭 악의 존재를 모른 척 무시하고 살 수 있었다. 시카고의 한 초등학교에서 불이 나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은 알았다. 어른들이 이성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봤다. 학교에서 친구들을 괴롭히는 못된 아이들도 겪었다. 막연하게나마 캔자스시티나 시카고에 보석 도둑, 은행 강도, 알 카포네 스타일의 갱 같은 범죄자들이 있다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그 책을 읽고서야 비로소 아이들을 조직적으로 죽이는 어른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인간에 대한 내 이해의 영역에 안네 같은 영웅뿐 아니라 그를 죽게 만든 악당들까지 포함된 것이다. <안네의 일기>를 읽는 동안 나는 내 마음 속에 머물던 천진난만한 아이를 잃었다.

2003년 9월, 십다섯살 때 워싱턴 D.C.에 있는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박물관을 방문해 안네 프랑크 전시를 관람했다. 전 시장에서 상영되는 비디오 영상에서는 안네의 아버지 오토 프랑크의 고용인이자 안네의 가족이 숨어 살던 은신처로 식량을 조달해 주던 미프 히스의 증언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미프는 안네를 늘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소녀로 기억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안심시키고자 전해 주는 희망의 말을 믿으려 했지만 안네는 문까지 따라와 미프를 붙잡고 물었다. “진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건가요?”

전시 막바지에 관람객들은 길에서 걸인들을 지나치며 느꼈던 감정과 경험을 담은 안네의 에세이 <주세요!>를 어린 소녀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었다. 안네는 안락한 집에 사는 사람들이 걸인의 삶을 이해하는지 궁금해하며 이런 희망을 전했다. “모두가 적당한 때를 기다리지 않고, 지금 당장 조금씩 세상을 바꿔 나간다면 얼마나 멋진까요.” 그리고 그 희망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도 제안했다. “당신이 줘야 하는 걸 주세요. 우리는 언제나 뭔가를 줄 수 있어요. 아주 작은 친절 한 행동 하나라도 말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글을 끝맺는다. “세상에는 방과 재물, 돈과 아름다움이 넘칩니다. 신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분하도록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당장 그것을 좀 더 공평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안네 프랑크는 결국 타인에게 목숨을 잃었지만 짧고 제한된 자신의 삶을 통해 진실과 희망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남겼다. 그는 죽었지만 그의 글은 살아남아 인간의 영혼은 최악의 상황에서조차 아낌없이 베풀 수 있음을 증명해 보였다. 또한 숫자가 난무하는 전쟁과 대학살의 통계 뒤에 우리가 도와야 할 수많은 선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 메리 파이버(2020), 나의 글로 세상을 1밀리미터라도 바꿀 수 있다면, 티라미수, pp.37-38.

글쓴이가 안네 프랑크를 통해 깨달은 점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자.

2. 글쓴이가 안네가 남긴 진실과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듯이, 자신을 일깨워 준 문장을 노래 가사나 영화 대사 중에서 떠올려 보고, 수업 게시판에 올려 보자.

나를 일깨워 준 문장:

이 문장을 통해 성찰한 점:

### 예시답안

이 글의 글쓴이는 안네의 일기를 읽고 자신의 세계관이 바뀌는 경험을 한다. 글쓴이의 성찰 과정을 살펴보고 이처럼 자신을 일깨워 준 문장을 노래 가사나 영화 대사 중에서 떠올려 보고 수업 게시판에 올려 친구들에게 소개해 보자.

1. 글쓴이가 안네 프랑크를 통해 깨달은 점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자.

인간에 대한 이해의 영역에 ‘안네’ 같은 영웅뿐 아니라 그를 죽게 만든 악당들까지 포함되었다.

인간의 영혼은 최악의 상황에서조차 아낌없이 베풀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도와야 할 수많은 선한 사람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2. 글쓴이가 안네가 남긴 진실과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듯이, 자신을 일깨워 준 문장을 노래 가사나 영화 대사 중에서 떠올려 보고, 수업 게시판에 올려 보자.

나를 일깨워 준 문장: ‘재능은 없고 하려고 하는 열정만 가득한 사람들 있잖아. 나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나 봐.’  
- 라라랜드 중에서

이 문장을 통해 성찰한 점: 영화에서 미아가 계속 실패하다가 결국 연기를 그만두려고 할 때의 대사인데, 그동안 내가 너무 높기만 한 목표를 정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해 주었다. 이 영화를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인지 생각해 보았다.

## 교사 설명의 예

우리가 평소 읽은 책들의 좋은 문장들이 우리의 생각에 균열을 일으키기도 하고,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열어 주기도 한다. 각자의 일상에서 감명 깊었던 문장을 소개하고 그 속에서 자신이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평소에 문학 독서를 잘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좋은 문장의 예시가 문학작품에 한정되지 않음을 인식시키고, 자신이 읽은 책 속 문장을 활용하거나 영화나 드라마, 웹툰 등 평소에 접하는 다양한 매체 자료를 활용하도록 해준다. 그 속에서 학생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 공감하는 것 등을 표현하게 하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인식하게 한다.

➡ 학생들이 그동안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자아 성찰을 해 보도록 이끌어 준다.

**자기주도 학습하기 2**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자아 성찰을 해 보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다음의 짧은 문장으로 정리해 보자. (단, 다음의 예시어를 두 개 이상 사용할 것, 자신을 특정 대상에 빗대어 표현할 것.)

성실한, 온화한, 따뜻한, 열정적인, 도전적인, 창의적인, 친절함, 실용적인, 논리적인, 비판적인, 외향적인, 내향적인, 직관적인, 감정적인, 분석적인, 계획적인, 사교적인

나는 \_\_\_\_\_이다.  
\_\_\_\_\_ (이)기 때문이다.

## 예시답안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자아 성찰을 해 보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다음의 짧은 문장으로 정리해 보자. (단, 다음의 예시어를 두 개 이상 사용할 것, 자신을 특정 대상에 빗대어 표현할 것.)

성실한, 온화한, 따뜻한, 열정적인, 도전적인, 창의적인, 친절함, 실용적인, 논리적인, 비판적인, 외향적인, 내향적인, 직관적인, 감정적인, 분석적인, 계획적인, 사교적인

나는 비판적이고 계획적인 고슴도치이다.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숨겨진 무언가가 있지는 않을까 의심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나를 예민한 사람으로 생각한다, 또한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 교사 설명의 예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자아 성찰을 하며 살아간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의미를 부여해보며 자기 삶의 가치를 인식하게 되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자아를 성찰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자신을 더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다.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을 알고 잘 조율하게 되며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더욱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청소년기에 겪을 어려움을 건강하게 극복해 나가며 미래를 잘 계획할 수 있다.

### 교사용 TIP

수업을 통하여 느낀 점을 짧은 문장으로 정리하는 활동을 통하여 문학 감상 활동이 곧 자아 성찰과 맞닿아 있었음을 학생 스스로 느끼도록 한다. 이 경험을 통해 평소에 자아를 성찰하는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 학생 활동지



### 제목

있는 그대로의 ‘나’와 마주하기

**활동 1** 이 단원의 제재를 잘 이해하기 위해 주요 단어의 의미를 파악해 보자.

어휘	내가 생각하는 의미	사전적 의미
성찰		
정체성		
성장		
반성		

**활동 2** ‘체리새우: 비밀글입니다’<sup>17)</sup> 읽기

1. ‘체리새우: 비밀글입니다’를 읽으며 빈칸을 채워 보자.

#### 5분 대기조

- 다현이가 운영하는 ( )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다 말하는 공간이다.
- 다현이는 가곡을 들으면 마음이 편해지지만 이런 노래를 좋아하면 아이들이 ( )이라고 놀릴까 봐 숨기려 한다.
- 다현이는 체리새우와 자신이 작고 연약한 듯 보이지만 ( )인 점에서 닮았다고 생각한다.
- 다현이는 예전에 친구들에게 ( )를 당한 경험이 있다.
- 다현이는 중학교에 들어와 ( )를 만나 새로운 친구 무리를 사귀게 되었다.

#### 체리새우 껍질을 벗다

- 다섯손가락 친구들과 거리가 생긴 다현이는 아침이 되면 아팠고, 교실에 앉아 있으면 가슴이 ( ).
- 해강이가 되고 싶은 꿈은 ( ), ( )이다.
- 다현이는 다섯손가락 친구들과 멀어진 후, 글을 쓰면서 조금씩 ( )을 얻었다.
- 다현이는 더 이상 웅크리며 살지 않기로 결심하며 블로그를 ( )로 전환한다.
- 다현이는 이제 ( )처럼 우뚝 서서 더 단단해지겠다고 다짐하였다.

2. 소설을 읽으며 이 작품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질문을 만들고, 나름의 답을 달아 보자.

- 등장인물의 심리와 관련된 질문:
- 작품 속 사건과 관련된 질문:
- 작품과 유사한 현실과 관련된 질문:
- 작가의 의도와 관련된 질문:

17) 황영미(2019), 체리새우: 비밀글입니다, 문학동네, pp.19-34, pp.164-174.

3. 소설을 읽고 기억에 남는 장면 하나를 선택하여 다음의 표를 채워 보자.

기억에 남는 부분	이유	기억하고 싶은 구절

### 활동 3 '체리새우: 비밀글입니다'의 주요 내용 파악하기

1. 소설을 읽고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의 문제를 풀어 보자.

- 다현이는 친구들과 사귄 때 자신보다 친구들을 배려하는 편이다. ( O , X )
- 다섯손가락 친구들은 다현이를 존중하며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었다. ( O , X )
- 다현이는 끝까지 진지충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자신을 숨겼다. ( O , X )
- 다현이는 블로그에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글을 썼다. ( O , X )
- 다현이는 다섯손가락 친구들과 멀어진 후 외톨이가 되었다. ( O , X )

2. 이 소설의 감상평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여 수업 게시판에 올려 보자.

감상평	평점
	☆☆☆☆☆

### 활동 4 나의 삶과 연계하기

1. 다현이가 자신을 성찰하는 부분을 읽고 다음의 표를 채워 보자.

성찰하는 부분	인물의 생각	나였다면?

2. 다현이의 블로그에서 최고의 글을 선정하고 그 이유를 써 보자.

최고의 글	이유

### 활동 5 자신이 다음의 등장인물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는지 각각 써 보자.

내가 해강이었다면?	
내가 다현이었다면?	
내가 아람이었다면?	

## 학생 활동지



### 제목

### 있는 그대로의 '나'와 마주하기

**찾아읽기 1** 이정록의 시 '나를 이루는 것들'<sup>18)</sup>을 읽고 다음의 활동을 해 보자.

#### 나를 이루는 것들

이정록

자연산 홍합이나 전복에는  
다닥다닥 다른 생물들이 붙어살지  
얼굴이야 우둘투둘 못나 보이지만  
마음이 통한다면 심심하지 않겠지  
바닷속 어둠도 두렵지 않겠지  
자연산 홍합탕이나 전복찌개는  
결방 사는 작은 조개들이  
맛을 더해 주는 게 아닐까  
우리들의 부끄러운 추억과  
귀찮은 일과 떼어 내고 싶은 사람들이  
멋을 더해 주는 게 아닐까  
억센 파도를 먼저 맞아 주는 게 아닐까  
어판장 시멘트 바닥에 팽개쳐질 때  
으깨어지면서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닐까  
문을 딱 잠그고 홀로 몸서리칠 때  
끝내 고맙다거나 미안하다는 말을 건네지 못한  
안타까운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건 아닐까  
나를 나답게 한 건  
나를 둘러싼 것들 덕분이라고,  
버리고 지우고 떨쳐 내고 싶은 것까지  
바로 나라고, 홍합 껍데기를 어루만지며  
여드름 자국을 보듬으며

18) 이정록(2017), 까짓것, 창비교육, pp.110~111.

1. 이 시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을 찾고, 해당 부분에 드러난 화자의 성찰을 중심으로 다음의 표를 채워 보자.

마음에 드는 부분	화자가 성찰한 내용	화자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일까?
연		
연		

2. 이 시에서 ‘나를 이루는 것들’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정리해 보자.

## 찾아읽기 2

1. 작가의 말을 참고하여 ‘체리새우: 비밀글입니다’와 ‘나를 이루는 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말해 보자.

저도 그랬고, 많은 아이들이 자기를 감추며 살아요. 나를 드러내면 무시당할까 봐, 혹은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를 떠날까 봐 두려운 거겠지요. 다행히 요즘은 온라인에서 속마음을 많이 털어 놓더군요. 한번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급식 같이 먹을 친구가 없어서 점심을 굶는다는 글을 보게 되었어요. 왜 밥 안 먹었냐고 누가 물으면 다이어트한다고 둘러댄대요.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서 긴 댓글을 달았어요. 이런 것 말고도 관계에 대한 고민 글은 끝도 없이 커뮤니티에 올라와요. 각자 사정이 절박해서 정답도 없어요. 전학이나 자퇴를 고민할 정도로 심각한 글도 꽤 있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게시글에 댓글을 다는 심정으로 소설을 쓰게 되었어요. (작가 인터뷰: <http://ch.yes24.com/Article/View/38121>)

굿바이라는 말의 어원은 ‘God be with you’라고 한다.

이제 체리 새우에 나오는 아이들이 내 곁을 떠난다. 꽃길만 걸을 수는 없겠지만, 미움받더라도 당당하게 잘 살아 내기를. 김다현, 굿바이! (작가의 말: 황영미(2019), 체리새우: 비밀글입니다, 문학동네, p.199)

- 황영미

이 시집은 그 세월을 나와 함께한 토막 분필과 몽당연필에 대한 반성문이다. 내 절망과 아이들의 초록빛 목소리를 담고 싶었다.

미안하고 고맙다.

강을 굽어본다. 강 건너 포플러나무 이파리가 반짝거린다. 저 강의 너비와 깊이를 만든 건 무자비한 홍수였을 것이다. 흙탕물이 덮쳤던 강바닥으로 흰 새가 난다. 강바닥이 깊을수록 커다란 홍수를 이겨 낸 증거다. 삶의 가장 낮은 꼭짓점에 청춘이 있다. 툭 차고 올라 새의 날갯짓이 되자. 포플러나무의 푸른 춤이 되자.

-이정록

(작가의 말: 이정록(2017), 까짓것, 창비교육, pp.122-123)

**찾아읽기 3** 화자와 비슷한 경험을 떠올려 보고 시의 형식을 참고하여 나만의 생각이 들어간 ‘나를 이루는 것들’의 변형시를 써 보자.

1. 화자와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보자.

- 내가 사랑하는 것은?
-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영향을 미친 사람은?
-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떠한가?
- 나를 힘들거나 슬프게 하는 것은?
-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은?

2. 자신의 경험을 반영하여 ‘나를 이루는 것들’의 변형시를 써 보자.

## 학생 활동지



## 제목

## 있는 그대로의 ‘나’와 마주하기

**자기주도 학습하기 1** 이 글의 글쓴이는 안네의 일기를 읽고 자신의 세계관이 바뀌는 경험을 한다. 글쓴이의 성찰 과정을 살펴보고 이처럼 자신을 일깨워 준 문장을 노래 가사나 영화 대사 중에서 떠올려 보고 수업 게시판에 올려 친구들에게 소개해 보자.

처음으로 나의 세계관을 바꿔준 책은 <안네의 일기>였다. 네브래스카주 비버시티에 살던 시절, 열두 살 때 일이다. <안네의 일기>를 읽기 전까지는 그럭저럭 악의 존재를 모른 척 무시하고 살 수 있었다. 시카고의 한 초등학교에서 불이 나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은 알았다. 어른들이 이성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봤다. 학교에서 친구들을 괴롭히는 못된 아이들도 겪었다. 막연하게나마 캔자스시티나 시카고에 보석 도둑, 은행 강도, 알 카포네 스타일의 갱 같은 범죄자들이 있다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그 책을 읽고서야 비로소 아이들을 조직적으로 죽이는 어른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인간에 대한 내 이해의 영역에 안네 같은 영웅뿐 아니라 그를 죽게 만든 악당들까지 포함된 것이다. <안네의 일기>를 읽는 동안 나는 내 마음 속에 머물던 천진난만한 아이를 잃었다.

2003년 9월, 천다섯살 때 워싱턴 D.C.에 있는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박물관을 방문해 안네 프랑크 전시를 관람했다. 전시장에서 상영되는 비디오 영상에서는 안네의 아버지 오토 프랑크의 고용인이자 안네의 가족이 숨어 살던 은신처로 식량을 조달해 주던 미프 히스의 증언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미프는 안네를 늘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소녀로 기억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안심시키고자 전해 주는 희망의 말을 믿으려 했지만 안네는 문까지 따라와 미프를 붙잡고 물었다. “진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건가요?”

전시 막바지에 관람객들은 길에서 걸인들을 지나치며 느꼈던 감정과 경험을 담은 안네의 에세이 <주세요!>를 어린 소녀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었다. 안네는 안락한 집에 사는 사람들이 걸인의 삶을 이해하는지 궁금해하며 이런 희망을 전했다. “모두가 적당한 때를 기다리지 않고, 지금 당장 조금씩 세상을 바꿔 나간다면 얼마나 멋진가요.” 그리고 그 희망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도 제안했다. “당신이 줘야 하는 걸 주세요. 우리는 언제나 뭔가를 줄 수 있어요. 아주 작은 친절하한 행동 하나라도 말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글을 끝맺는다. “세상에는 방과 재물, 돈과 아름다움이 넘칩니다. 신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분하도록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당장 그것을 좀 더 공평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안네 프랑크는 결국 타인에게 목숨을 잃었지만 짧고 제한된 자신의 삶을 통해 진실과 희망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남겼다. 그는 죽었지만 그의 글은 살아남아 인간의 영혼은 최악의 상황에서조차 아낌없이 베풀 수 있음을 증명해 보였다. 또한 숫자가 난무하는 전쟁과 대학살의 통계 뒤에 우리가 도와야 할 수많은 선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 메리 파이퍼(2020), 나의 글로 세상을 1밀리미터라도 바꿀 수 있다면, 티라미수, pp.37-38

1. 글쓴이가 ‘안네 프랑크’를 통해 깨달은 점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자.

2. 글쓴이가 ‘안네 프랑크’가 남긴 진실과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듯이, 자신을 일깨워 준 문장을 노래 가사나 영화 대사 중에서 떠올려 보고 수업 게시판에 올려 보자.

나를 일깨워 준 문장:

이 문장을 통해 성찰한 점:

**자기주도 학습하기 2**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자아 성찰을 해 보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다음의 예시어를 활용하여 짧은 문장으로 정리해 보자. (단, 다음의 예시어를 두 개 이상 사용할 것, 자신을 특정 대상에 빗대어 표현할 것.)

성실한, 온화한, 따뜻한, 열정적인, 도전적인, 창의적인, 친절함, 실용적인, 논리적인, 비판적인, 외향적인, 내향적인, 직관적인, 감정적인, 분석적인, 계획적인, 사교적인

나는 \_\_\_\_\_이다.  
\_\_\_\_\_(이)기 때문이다.

## 읽기자료 1



## 5분 대기조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친구들에게 톡을 보냈다.

- 볼일 다 봤는데, 지금 어디? 갈까? 오후 3:42

10초 후에 설아한테서 답문이 왔다.

- 공원! 곧 헤어질 예정. 학원 차 타야 함. 올 필요 없으심 ㅋ 오후 3:42

- 그렇구나. ㅋㅋ 학원 가서 수업 잘하고, 오후 3:43

온갖 이모티콘과 함께 문자를 보냈다. 답문은 없었다. 당연한 일인데 조금 서운했다. 뭐, 괜찮다. 어차피 마지막 문자는 늘 내 몫이니까.

다시 안 나가도 된다니 마음 놓고 샤워를 했다. 머리를 감으며 노래를 불렀다.

“두 번 다신 생선 가게 털지 않아. 서럽게 울던 날들 나는 외톨이라네. 이젠 바다로 떠날 거예요. 거미로 그물 쳐서 물고기 잡으러!”

목청껏 부르는 노래가 쏟아지는 물소리에 섞였다. 체리필터의 〈낭만 고양이〉. 내 비공개 블로그 체리새우의 배경음악이다. 배경음악은 자주 바뀐다. 이 노래 말고도 좋은 노래를 많이 올려 놓았다. 책 읽다가 발견한 좋은 문장이나 내가 찍은 동네 풍경도 있다. 체리새우 블로그는 내가 좋아하는 걸 다 말하는 공간이다. 물론 비공개로, 나는 블로그를 하면서 2월의 불안을 견디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다. 2월이면 아이들은 반 배정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니 햇꿀꿀이니 개꿀꿀이니 주문까지 만드는 거겠지. 새 학년이 되면 막연했던 두려움은 현실이 된다. 같이 주문을 걸던 아이들도 각자 입장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 정도면 됐다고 안심하거나 패닉에 빠지거나.

샤워를 하고 나와 냉동실에서 볶음밥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넣었다. 엄마는 김치볶음밥, 마늘치킨볶음밥 같은 걸 만들어 1인분씩 용기에 담아 냉동실에 넣어 둔다. 내가 언제든 꺼내서 먹을 수 있게.

전자레인지가 돌아가는 동안 헤어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렸다. 노래가 입에서 계속 맴돌았다.

낮게 흥얼거리면서도 나는 외톨이라네, 이 대목에서는 조금 크게 불렀다. 노래는 이상하다. ‘나는 외톨이’라고 소리 지르면, 외톨이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그때 갑자기 어떤 깨달음이 스쳤다. 내가 반 배정은 성공했는데 짝 배정이 망한 이유.

아무래도 주문을 잘못 걸어서 부정 탄 것 같다. ‘반 배정 개꿀꿀’만 썼어야 했는데 ‘헛꿀꿀’까지 쓰다니. 작년 주문을 써서 결과가 꿀꿀하게 나온 거다.

그사이 마늘치킨볶음밥이 다 되었다. 나는 딱딱딱한 밥을 꺼내 토마토케첩을 뿌렸다. 역시 과민성대장증후군이다. 장염에 의한 설사라면 이렇게 금방 배가 고플 리가 없다. 맞다! 그리고 보니 점심 급식을 먹지 않았다.

식당 리모델링 공사로 이번 학기 내내 교실에서 점심을 먹어야 한다. 자리 이동도 안 된다. 작년에 급식실에서 큰 싸움이 난 후 그렇게 되었다. 그 일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고, 인터넷 청소년 신문에 기사까지 났다.

아람이와 병희는 자기 자리에서 점심을 먹었다. 나는 도저히 은유 옆에서 밥을 먹을 수 없었다. 할 수 없이 혼자 운동장으로 나갔다. 이러니 배가 고플 수밖에.

손가락을 뜨기 전 휴대폰으로 사진부터 찍었다. 그리고 다섯 손가락 단톡방에 올렸다.

- 기분 전환용 먹잘 올림. 엄마표 마늘치킨볶음밥. 염장 지르려고 올리는 거 아님. ㅋㅋㅋ 짝 배정 폭탄 맞은 설아도 힘내. 우리 한 달만 참자♡ 오후 4:12

휴대폰을 보며 밥을 먹기 시작했다. 음악 재생 목록을 열었다. 낭만 고양이를 들으려고 했는데 다른 노래가 눈에 띄었다. 가곡 <봄이 오면>이다. 이 노래는 바리톤으로 듣는 게 좋다. 플레이 버튼을 터치했다.

가곡을 들으면 마음이 편해진다. 그런데 이런 노래를 좋아하면 놀림 받기 십상이다. 클래식 음악을 전공할 것도 아닌 아이가 가곡을 좋아하면 아이들은 이렇게 말한다.

‘진지충!’

비슷한 뜻으로 ‘선비질한다’는 표현이 있다. 깨어 있는 척, 혼자 깨끗한 척, 고고한 척, 잘난 척할 때 ‘선비질하고 있네.’ 이른다.

나는 진지충 소리도 많이 들었고, 요즘은 자제하는 편이지만 선비질도 많이 했다. 인정한다. 보통 아이들이 거의 하지 않는 블로그를 하는 것만 봐도 그렇다. 친구들 시선으로 보면 내 취향은 엄청나게 올드하다. 생각은 선비질로 가득하고, 바로 그래서 블로그 말고는 나를 털어놓을 데가 없다.

물론 나 말고도 블로그를 하는 아이들이 있긴 하다. 뷰티 블로그, 게임 블로그를 운영하는 아이도 있고, 3학년 선배의 역사 블로그는 꽤 유명하다. 그런 블로그들은 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가 유용하기 때문에 나름 인기 있다. 내 블로그는 다르다. 체리 새우 블로그의 주제는 나, 김다현이다. 나의 블로그 대문에는 이런 글이 있다.

외갓집에서 체리새우를 처음 보았다. 수초 가득한 어항에 내 손톱만 한 크기의 새빨간 새우들이 있었다. 나는 것처럼 헤엄치는 모습이 예뻐다. 작고 연약한 듯 보이지만 굳건한 생명체, 나랑 닮았다. ㅋㅋ

체리새우 블로그를 다른 아이들이 본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래서 비공개로 설정해 두었지만 가끔 반발심이 생긴다. 깨어 있는 척이고, 깨끗한 척이고, 그 기준을 누가 정하는 거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일단 선비질, 진지충 딱지부터 붙이는 거 아닌가. 가곡 좀 좋아하면 안 되나? 케이팝 좋아하면 애국자고, 가곡 좋아하면 진지충인가?

.....라고 외치고 싶다. 학교 방송실 마이크에다 대고 말이다. 그럼 당장 전교 아싸로 등극하겠지. 아! 나는 매사 이런 식으로 토 달고,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 한다.

진지충 소리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들었다. 그때 휴대폰 통화 연결음이 '그 집 앞'이었다.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그리워 나도 몰래 발이 머물고, 대략 여기까지 흘러나오면 내가 전화를 받았다. 너 진지충이구나! 대놓고 이런 말 하는 아이는 차라리 괜찮았다.

그때 친하게 지내던 아이들이 있었다. 딱히 몇 명은 아니고 어떤 때는 세 명, 어떤 때는 다섯 명이 어울렸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상한 공기가 느껴졌다. 예를 들면 이런 대화를 나누는 식이었다.

A 너 점퍼 노란색이네. 한국인 중에 노란색 어울리는 사람 별로 없는데, 너는 정말 예쁘다. B 너는 옷 세련되게 잘 입잖아. 색상 맞춰 입는 감각 그거 타고나는 거거든. 나는 C 다리 긴 거 완전 부러워. 키 크면 뭐 하나? 비율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런 칭찬을 주고받으면서 그 자리에 있던 나만 쏙 빼놓는 식이었다. 게다가 '키 크면 뭐 하나?'에 해당되는 아이가 바로 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리 짧고 키 큰 애가 바로 나니까.

체험학습 가는 날이었다. 답임이 특별한 말이 없어서 아이들은 마음대로 버스에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먼저 버스에 오른 A와 B가 같이 앉고, C와 D가 통로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앉았다. 그 뒤에는 다른 아이들이 앉아서 나는 할 수 없이 맨 뒷자리로 갔다. 내가 A, B, C, D랑 친한 줄 알아서 나랑 앉으려는 아이도 없었다. 버스로 이동하는 내내 안절부절못했다. 박물관에서도 나 빼고 네 명만 몰려다녔다. 나를 알은체도 안 하는 그 애들 옆에 계속 있을 수도 없었다.

삼삼오오 무리를 지은 아이들 뒤를 나는 어정쩡하게 뒤따랐다. 문화해설사의 설명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때 생각했다. 나는 왕따인가? 은따인가? 하긴 은따면 어떻게 왕따면 어쩔 건가. 그저 '따'일 뿐인데.

대화할 친구가 없으니 생각만 넘쳤다. 복수할까? 조상님들 유물 앞에서 그냥 콧죽어 버릴까? 그래서 미라가 되어 저 전시관에 누워 볼까? 먼 훗날 A, B, C, D가 미라가 된 나를 보고 후회하겠지. 그 애들이 못 보더라도 상관 없다. 후손들이 나를 보고 음, 왕따는 정말 나쁜 거군. 이 정도만 깨달아도 좋겠다.

집에 와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주말 내내 곰곰이 생각하니 그동안 조짐이 있기는 했다. 9월에 A의 생일이 있었는데, 모두 A한테 생일 축하 토크를 날렸다. 그런데 보름 뒤 내 생일은 기억해 주는 아이가 없었다. 개교기념일에도 자기들끼리 놀았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는데, 왜 나한테는 연락하지 않았느냐고 차마 묻지 못했었다. 그 애들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나만 뚝 떨어진 주택가에 살아서였나? 아님 그날따라 내 휴대폰이 먹통이었나?

다음 주 월요일 학교에 가니 A, B, C, D 네 명이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내가 교실 문을 열자 D가 슬쩍 나를 쳐다 보았다.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하던 얘기를 계속했다. 나는 용기를 끌어모아 그 애들한테 다가갔다.

"나, 은따당하는 중이니?"

단도직입으로 물어 버렸다. A, B, C, D 넷 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야! 은따는 무슨!"

"말도 안 돼. 우리가 왜 너를 은따시키겠어?"

"다현아! 이리 와서 앉아. 우리 <딸기공주 뉴욕 가다> 얘기 중이야. <딸기공주 뉴욕 가다> 알아? 타임슬립 웹툰 있잖아. 뉴욕에 떨어진 조선 시대 공주 얘기."

온갖 상상을 다 했었는데 막상 아이들이 반갑게 대답해 주니 눈물이 날 거 같았다. 나는 가방을 자리에 내려놓고 그 애들 옆에 앉았다. 웹툰을 본 적 없어서 그 애들이 하는 말을 듣기만 했다. 그래도 지옥에서 탈출한 것처럼 감격스러웠다.

점심시간에도 그 애들은 계속 딸기공주 얘기만 했다. 웹툰을 안 봤으니 내가 끼어들 여지는 없었다. 그러다 D가 생각난 듯 나를 힐끔 보더니,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다현이 말이야, 아니카 닮지 않았어?"

"정말! 맞다. 맞아."

"완전 똑같아."

"웹툰 작가가 다현이 보고 아니카 캐릭터 만들었나 봐."

아이들은 이런 얘기를 주고받으며 자기들끼리 킁킁 웃었다. 뭐지? 이 묘한 공기는?

집에 와서 <딸기공주 뉴욕 가다>를 결제해서 읽었다. 그리하여 알았다. 아니카가 어떤 인물인지. 아니카는 뉴욕 뒷골목에 사는 백인 여자다. 뉴욕에 떨어져 어리둥절해하는 딸기공주를 등쳐 먹는 악당, 더럽게 눈치 없고, 클래식만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을 가르치려고 드는 캐릭터다. 이런 아니카가 나랑 똑같다고?

다음 날 학교에 가지 못했다. 그 후 일주일 더 결석했다. 몸살을 앓았다. 그때 동네 소아과에 다녔는데, 열나고 토해서 엄마가 많이 걱정했다.

학교에 다시 가서도 더 이상 그 애들 곁으로 갈 수 없었다. 백만 년 같은 며칠이 흘렀다. 그때 내게 다가온 아이가 권설이었다. 나중에 설아가 말해 주었다. A, B, C, D가 나에 대해 했던 말. 나에게는 똑똑하고 예쁜 아이들이나 취할 만한 태도나 제스처가 있다고 했단다. 성적도 별로고, 예쁘지도 않은 애가 그러니 웃기지 않느냐고,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완전 재수 없다고.

머리에 번개를 맞은 것 같았다. 충격이 좀 가신 뒤 그 애들의 말이 제대로 접수되었다. 맞다! 내가 좀 그런 면이 있다. 인정! 백 퍼센트 인정! 그때 난 엄청 나됐다. 능력도 안 되면서 수업 시간마다 손을 들었고, 책이라도 읽은 날이면 혼자 신나서 떠들곤 했다. 누굴 등쳐 먹은 적은 없지만, 내가 아니카 캐릭터를 닮은 것도 같았다.

그러나 그 애들이 엄마에 대해 했다는 말은 모욕적이었다. 코딱지만 한 우동 가게 하는 촌티 패션 아줌마가 클래식 말이 되냐고 했단 말.

이건 아니다. 나는 그 애들한테 가서 말하고 싶었다. 내가 재수 없는 애라는 건 인정하지만 엄마의 촌티 패션은 새 옷 사러 나갈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촌티 패션 아줌마는 클래식 좋아하면 안 되냐고, 우동 가게 오는 손님들도 클래식 틀어 놓는 거 좋아한다고.

하지만 말하지 못했다. 그 애들은 나를 위해 귀를 열어 주지 않았다.

밥을 절반쯤 먹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아람아! 이 시간에 웬일?"

반가운 마음에 소리를 질렀다. 아람이는 학원에 도착해 있을 시간이었다.

"어쩌지? 다현아! 나 부탁 좀 할게."

다급한 목소리였다.

"뭘데, 무슨 일 생긴 거야?"

"나 완전 미쳤나 봐! 우리 집에 가서 영어 교재 좀 갖다줄 수 있어? 집에 들르지 않고 오느라 학원 교재를 안 갖고 왔어. 곧 1교시 시작인데, 으악! 네가 날아와도 1교시 전에는 못 오겠지? 그럼 리스닝 교재만 갖다줘. 해 줄 수 있지?"

"그래, 그래. 갖다줄게. 그런데 어떤 책인지 내가 모르는데."

"내 책상 위에 보면 리스닝 책 있어. 보라색이야. 금방 눈에 띄 거야. 할머니한테 너 갈 거라고 말해 놓을게."

전화를 끊은 뒤 점퍼를 입었다. 먹다가 만 밥을 치울까 하다가 늦을까 봐 그냥 두었다. 마음이 급했다.

계단을 내려와 후다닥 뛰었다. 토끼방앗간 앞에서 꺾어 돌아 5분만 더 가면 아람이네 슈퍼마켓이 있다.

아람이 방까지 올라갈 것도 없었다.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아람이 할머니가 교재를 건네주며 말했다.

"얼른 가라!"

단호한 명령조였다. 잠깐 흠칫했지만 나는 아람이 할머니한테 인사를 꾸벅하고 다시 뛰었다. 아람이 학원은 버스로 세 정류장 떨어진 곳에 있다.

버스에 타서야 알았다. 샤워를 한 뒤 로션만 발랐다는 사실을. 갑자기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아! 주근깨!

눈 밑에서 볼 위까지 촘촘한 나의 주근깨 덕분에 집 밖에 나갈 때 비비크림은 필수다. 학생부장이 학교에 화장하고 오면 벌점 줄 거라고 엄포를 놓지만, 대부분 아이들이 비비크림 정도는 바르고 다닌다. 나는 눈이나 입술 화장은 가끔 해도, 비비크림은 꼭 바르고 다닌다. 아까는 아람이의 다급한 목소리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다. 마스크라도 쓰고 나왔어야 했다.

버스에서 내려 학원 건물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고개를 푹 숙였다. 아는 아이라도 만날까 봐 가슴이 쿵쿵 뛰었다. 여긴 어떤 일이냐고 누가 묻기라도 하면 어찌지? 급히 아람이 책 갖다주러 왔다는 말은 하고 싶지 않았다.

아람이한테 문자를 보냈다.

- 나, 도착! 어디로 가면 돼? 오후 4:55

금방 답문이 왔다.

- 지금 수업 중! 카운터에 맡겨 놔. 고마워. ^^ 오후 4:55

- 괜찮아. 어차피 외출하려고 했었어. ^^ 오후 4:56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수업 중이어서인지 다행히 복도에 아무도 없었다. 나는 카운터로 가서 말했다.

"저기, 송아람 학생 친구인데요. 여기에 책 맡겨 놓으라고 해서."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땀이 났다. "두고 가."

세련된 정장 차림의 여자가 사무적으로 말했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뒤통수가 따가웠다. 나를 조롱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어머니! 저 애 좀 봐. 친구 심부름이나 하고, 한심하다, 한심해!

어디든 숨고 싶었다. 순간 이동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른 집에 가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다.

집에 와서 남은 밥을 마저 먹었다. 전자레인지에 다시 데웠더니 여전히 맛있었다. 엄마가 삶아 놓은 감자도 먹었다. 그래도 허기가 졌다. 나는 청양고추와 고춧가루를 잔뜩 넣어 라면을 끓였다. 후후 불어 가며 먹는데 너무 매워서 머리통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았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그래도 국물까지 싹싹 긁어 먹었다.

기분은 여전히 좋지 않았다. 아람이 할머니는 나한테 왜 그랬을까? 최소한 고맙다는 말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얼른 가라니! 내가 아람이 심부름꾼인가? 척 보면 내가 무시해도 좋게 생겼나?

갑자기 뜨끔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심부름이라니. 나는 곤란에 처한 친구를 도와준 거지, 심부름을 한 게 아니다.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야. 제발 대강대강 좀 넘어가자!!

5학년 때 그 사건 이후에도 몇 번 더 은파 분위기를 겪었다.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나에 관한 말, 그것은 내가 잘난 체하며 따지기를 좋아한다는 거였다.

나는 그때그때 내가 하는 생각을 말하고 싶다. 내가 잘한 것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다. 잘 모르겠다. 왜 인간이 겸손해야 하는지. 그건 위선 아닌가?

하지만 그 이후 나는 절대 나대지 않고, 어떻게든 튀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따지고 싶은 일이 생겨도 말로 내뱉기 전에 꿀꺽 생각을 삼켰다. 학교에서는 가요만 들었다.

중학교에 들어와서 권설아를 다시 만난 건 행운이었다. 설아가 나를 자기 그룹에 끼워 줬으니까. 아람이, 병희, 미소는 얼굴만 알던 애들이었는데, 설아와 같은 반이 된 나를 기꺼이 받아 주었다.

매일이 축제 같았다. 우리 다섯이 뭉쳐 다니니 함부로 나를 대하는 아이가 없었다. 불쑥 따지거나 자랑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을 붙잡았다. 등교할 때 영혼을 집에 두고 나온 거라고, 이렇게 소중한 친구들을 다시 잃을 순 없다고,

그런데 순둥이로 살기로 작정하니 다른 문제가 생겼다. 아무래도 어떤 사람들한테 내가 만만해 보이는 것 같다.

밤에 엄마가 퇴근하면 나도 학원 다니고 싶다고 말해 볼까? 아람이 할머니는 내가 학원에 안 다녀서 무시한 건지도 모른다. 어른들은 학원에 다니지 않는 아이는 성적이 바닥이거나 지독하게 가난할 거라고 생각한다. 나는 어른들의 그 단단한 오해를 깨뜨릴 자신이 없고, 무시당하기도 싫다. 내가 요구하면 엄마는 두 손 들어 환영할 것이다.

사실 엄마가 다니라고 해서 학원에 다닌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학교보다 학원이 더 끔찍했다. 나는 학원에서 수준별로 반을 나누는 걸 납득할 수가 없었다. 그게 성적을 올리는 데 효율적일 수도 있겠지만, 내 성적은 오히려 학원에 다니면서 더 떨어졌다. 무엇보다 나한테는 성적보다 친구가 더 중요하다. 내가 학원에 다니게 되면 오늘처럼 아람이가 곤경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도 없을 테니!

## 읽기자료 2



## 체리새우 껍질을 벗다.

그날 이후 설아가 했던 말이 무한 반복되어 자꾸 생각났다. 가장 가슴 아팠던 말은 이거였다. 은파였던 나를 자기네 그룹에 끼워 줬더니 내가 배신을 한 거라고.

배신이라는 소리까지 들으니 별의별 생각이 다 났다. 효정이까지 새로운 다섯 손가락이 된 그 애들이 나에게 대해 어떤 말들을 하고 있을지.

‘그럴 줄 알았어. 원래 포스트잇보다 가벼운 애잖아.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영딩이가 가볍잖아, 팔랑팔랑.’

‘근데, 다현이, 오리궁둥이 같지 않아?’

‘꼴에 방송반 훈남 넘보는 것 좀 봐.’

이 대목에서는 단체로 까르르 웃겠지. 나는 그 애들이 남을 비방하는 방식을 너무나 잘 안다.

나는 뒷골목으로만 다녔다. 후문으로 다니니 말 많은 아이들을 만날 일이 없었다. 길을 돌아서 가니 시간은 두 배로 걸렸다. 한낮은 대체로 더웠다. 하얀 꽃잎 사이로 5월의 햇살이 쏟아지면 어디 멀리 날아가고 싶었다.

집에 있을 땐 그러저럭 편했다. 폰 게임을 하고, 텔레비전을 보고, 노래 듣고, 책을 읽으면 잡생각이 덜 나니까.

그런데 학교에만 가면 정말이지 불편했다. 노력해보는지 경멸하는지 파악이 안 되는 아람이의 눈빛. 다만 메시지만은 분명했다.

‘너는 이제 끝이야!’

병희는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나를 외면했다. 설아나 미소는 어쩌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나를 모른 체하고 지나갔다. 이런 짧은 순간 뒤에는 폭탄을 맞은 것처럼 머리가 하얘졌다. 선생님의 말도, 반 아이들의 말도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지구는 나를 공격하는 방향으로 자전하는 것 같았다.

아침이 되면 배가 아팠다. 머리도 아팠다. 교실에 앉아 있으면 가슴이 답답했다. 나는 나침반도 없이 사막에 홀로 내던져진 것 같았다. 아니다. 그보다 더했다. 다섯 손가락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까지 쑥덕쑥덕 내 험담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었다.

간절히 생각했다. 엄청난 폭풍이 몰려와 우리 학교를 깔금하게 날려 버리기를, 아니면 지진이라도 났으면, 그러면 학교가 복구될 때까지 휴교하겠지. 정말로 딱 1년만 단체로 학교에 안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다 다시 학교를 간다면, 그리하여 우리가 만난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다행히 마을신문 모듬 아이들이 종종 말을 걸어왔다. 은유가 말했다.

"기사 쓸 때는 단문이 좋다더라. 난 그게 힘들어. 내 글은 쉽표가 너무 많아. 머릿속에서 생각이 들끓는데, 정리가 안 되어서 그런가 봐."

은유처럼 글 잘 쓰는 아이도 저런 고민을 하는구나. 어쨌든 대화 상대가 있어서 눈물 나게 고마웠다.

"너 주슨트가 뭔지 알아?"

점심시간에 해강이가 다가와 말했다.

"아니, 몰라. 뭔데?"

"동물 해설사를 주슨트라고 한대.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들었어. 다현아! 나 주슨트 할까?"

해강이가 진지하게 물었다.

"그러게, 너 동물 좋아하니까 해설사 하면 좋을 거 같다."

"그런데 주슨트 말고도 또 되고 싶은 게 있어. 우리 교회 근처에 반려견 유치원 있거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출근하면서 유치원에 강아지를 맡겼다가 퇴근할 때 데리고 가는데, 거기 선생님들 대박 멋져. 앞치마 이렇게 두르고, 표정도 밝고, 강아지들하고 완전 친해. 다현아! 나 반려견 돌보는 일 잘할 거 같지 않냐?"

"완전 잘할 거 같아!"

나는 엄지까지 척 들어 올리며 말했다. 진심이였다. 해강이는 콧구멍까지 벌렁거리며 좋아했다.

가만 생각하니 해강이는 자주 내 자리로 찾아왔다. 내가 아람이, 병희와 서먹해진 뒤부터였던 거 같다. 해강이가 오면 자연스레 시후도 왔다. 은유도.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이 말 누가 했지? 맥아더 장군인가? 아닌가? 이순신 장군인가?"

해강이가 물었다. 그 말을 들으니 나도 헛갈렸다. 은유도 시후도 고개를 갸우뚱했다.

"우리 교회에서 시화전 하는데, 도화지 테두리를 그 가위로 오리면 좋은데, 뭐지? 너희들, 그 가위 알지? 뭐더라? 요렇게, 요렇게, 세모, 세모로 오리는 가위. 아! 뭐지?"

한번은 또 답답한 듯 이렇게 물었다. 우리 셋은 무슨 말인지 몰라 해강이 입만 쳐다보았다.

"아! 생각났다! 킹콩가위! 애들아! 시화전 할 도화지 킹콩가위로 오려도 되겠지?"

"혹시 핑킹가위 말하는 거 아니야?"

은유가 말했다.

"대박! 맞아! 핑킹가위! 은유 천재데!"

해강이가 은유를 쳐다보며 활짝 웃었다. 킹콩가위라니! 나는 마시던 우유를 뱉을 뻔했다. 해강이 덕분에 우리는 배를 잡고 킬킬 웃었다.

해강이가 옆에 있으면 우리는 다 같이 빙구 땡구 개그맨이 된 것 같았다. 그래서 좋았다. 힘들 때는 생각을 멈추고 그냥 웃는 것도 괜찮다.

완벽히 혼자가 된 저녁 시간, 챙겨야 할 단톡방이 사라지니 할 일이 없었다. 밤늦도록 게임을 했고, 블로그 음악을 들으며 잠들었다. 멍청하고 불안한 무중력의 밤. 이대로 가다가는 오징어포처럼 말라 버릴 터였다. 그리하여 체리새우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5월 10일

제비꽃 안녕!

꽃 이름 알려 주는 앱에서 네 이름을 알게 되었어. 너의 보라색이 마음에 들어. 나는 골목 담벼락 장미 넝쿨 밑에 도도하게 피어 있는 너를 귀신같이 알아봤지. 너를 좋아하게 될 것 같아. 너도 내가 반갑지?

체리새우도 좋아하고 너도 발견해 낸 걸 보면 나는 작고 여린 존재한테 확실히 끌리나 봐.

너도 내 이름을 불러 줘. 알았지? 우리 반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듯. 이름이야 알 테지. 하지만 나에게 관심이 없어, 학교에서 하루는 백만 년 같아. 나는 말이지, 먼지처럼 교실을 떠다녀. 그러니 제비꽃! 네가 내 이름을 불러 줘야 해. 내일 학교 가는 길에 나를 보면 인사해 줘.

김다현! 오늘도 좋은 하루! 이렇게.

#### 5월 11일

레오폴트 모차르트의 곡을 연속해서 들었다.

〈농부의 결혼식〉, 〈썰매 타기〉, 〈장난감 교향곡〉.

〈썰매 타기를 자주 들으니 크리스마스가 벌써 기다려짐.

#### 5월 13일

선생님 인터뷰까지 무사히 끝내고

마을신문 '안아주세요' 기사 완성. 초고임. 맞춤법 검색기 필수.

아자!! 아자!!

#### 5월 14일

어떤 친구가 말했다. 우리 모두는 나무들처럼 혼자라고, 좋은 친구는 서로에게 햇살이 되어 주고 바람이 되어 주면 된다고, 독립된 나무로 잘 자라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 그게 친구라고.

이 말이 계속 생각난다.

ㄴ 댓글: 내 글에 내가 댓글 님. ㅋㅋ 친구는 동등한 관계여야 한다. 그런데 나는 자주 무시당했다. 지금 생각하니 내가 자초한 듯. 나는 친구를 잃을까 봐 늘 전전긍긍이었다. 선물 주는 버릇, 눈치 보기, 거절 못 하는 것. 스스로를 업신여기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기 어렵다. 당당해지자!

#### 5월 15일

마늘빵 초간단 레시피.

녹인 버터에 다진 마늘과 올리브당을 섞음.

식빵에 발라서 프라이팬에 구워 줌.

파슬리 가루 솔솔. 완성!!!

마늘빵 사진을 찍어 모듬 단톡방에 올렸다. 순식간에 반응 폭이 올라왔다.

오늘은 재량휴업일, 현재 나는 집에 혼자 있다. 그런데 나는 모듬 아이들과 실시간으로 소통 중이심.

그리고 보면 세상에 완벽한 혼자라는 없다. 혼자라고 자기 연민에 빠질 것도 없고, 주눅 들 것도 없다! 고오렘!

#### 5월 16일

고백을 못 하는 이유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이때 필요한 건 '아님 말고 정신'이다. 고백을 한 뒤, 차이면 이렇게 말하면 된다. '그래? 아님 말고!'

#### 5월 18일

〈마이 네임 이즈 노바디〉란 영화를 결제해서 보았다. 우리 동네에서 찍은 독립영화다. 감동! 평점 별 다섯 개! 존재감도 없는 주인공이 평화롭게 사는 일상은 닳고 싶을 만큼 멋졌다.

나의 한 줄 평

존재감 없으면 어때? nobody면 어때? 그게 나야. 뭐 어찌라고!

블로그에 글을 쓴 뒤에도 영화에 대한 감동은 다음 날까지 이어졌다. 우리 동네 골목을 뛰어가던 주인공도 자꾸만 떠올랐다. 많은 아이들에게 이 영화를 소개하고 싶었다. 하긴 마을신문에 은유의 리뷰가 실릴 테지. 그랬다가 밤이 되니 또 생각났다.

#### 5월 19일

나는 'nobody'이기도 하지만 'somebody'가 될 수도 있다. 내가 왜 존중받지 못하고 살아야 하지? 싫다.

외로워도 할 수 없다. 괜찮다. 영혼의 빈자리를 온전히 나로 단단하게 채우면 된다. 그리고 차츰차츰 좋은 친구들이 생길 것이다. 아님 말고!

#### 5월 19일 두 번째 글

친구들이 떠난 허전한 자리에 어느덧 나를 위한 문장들이 차곡차곡 쌓였다.

글을 쓰면서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다. 더 이상 웅크리며 살고 싶지 않았다.

많이 고민하지도 않았다.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니까. 체리새우 블로그를 공개로 전환하기로 했다.

공개로 돌리기 전에 몇 가지 글을 정돈할 필요가 있었다. 먼저 블로그 이름을 '체리새우'로 정한 사연을 짧게 수정했다.

외갓집에서 체리새우를 처음 보았다. 수초 가득한 어항에서 나는 것처럼 헤엄치는 모습이 예뻐다.

맑은 물에서 사는 담수새우이고, 몸집이 자라면 주기적으로 탈피를 한다. 빈 껍질을 벗어 버리고 점프하는 모습이 무척 신비로웠다.

마지막에 체리새우처럼 자유롭게 탈피하고 싶다는 문장을 썼다 지웠다. 지금까지 비워 두었던 프로필 소개란에 찝막한 글도 적었다.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 '아님 말고' 정신! 그리고 '어찌라고' 정신!

배경음악은 나나이모밴드의 〈그냥 웃어〉로 바꿨다. 이 노래는 나나이모밴드 공식 블로그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팬이 되면서 나나이모의 뜻도 알게 되었다. 나나이모는 '여기 다 모여라'라는 북미 원주민의 말이라고 한다.

5월 20일

블로그 공개를 결심한 새벽.

오래전 텔레비전에 나온 영화평론가가 했던 말이 생각난다. 레지스탕스인지 독립운동인지를 하는 여자 혁명가가 청혼을 거절하며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한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나는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아요. 다만 역사에 소속될 뿐이죠.”

멋지다. 나 역시 지금은 어디에도 소속되고 싶지 않은 상태여서.

어쨌든 나도 나무처럼 우뚝 서고 싶다. 바람이 불면 흔들릴 테지.

괜찮다. 그러면서 이파리는 더 파래지고 뿌리도 단단해질 테니.

가슴이 쿵쿵 뛰었다. 허접한 블로그라고 욕먹으면 어찌지? 방문했다가 에이, 진지충이네, 이러면 어찌지? 어제까지의 내가 자꾸만 튀어나오려고 했다. 나는 내 마음을 다독였다.

‘그래, 나 진지충이다. 어찌라고!’

## ● 참고문헌

- 이정록(2017), 까짓것, 창비교육.
- 황영미(2019), 체리 새우: 비밀글입니다, 문학동네.
- 메리 파이퍼(2020), 나의 글로 세상을 1밀리미터라도 바꿀 수 있다면, 티라미수.